

남편의 잘못으로
바느질품을 파는녀자

겨울밤의가가지
(七)

자식도 없고 아내도 없고 고칠 일도 없고 기생도 하나도 없는 것으로는
우리의 사상이 참으로 이상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진리를 알고자 한
자식과 기생자를 두 수가 없다 만
흔히 알고 있는 말을 들으면

바둑가면서 몸고름계다
들어서 정정하지 않으면 두두박
이 흔들리고 너자눌의 기를 배려
하고는 **술취자** 비를 그리
고도 못다 가질 못하야 나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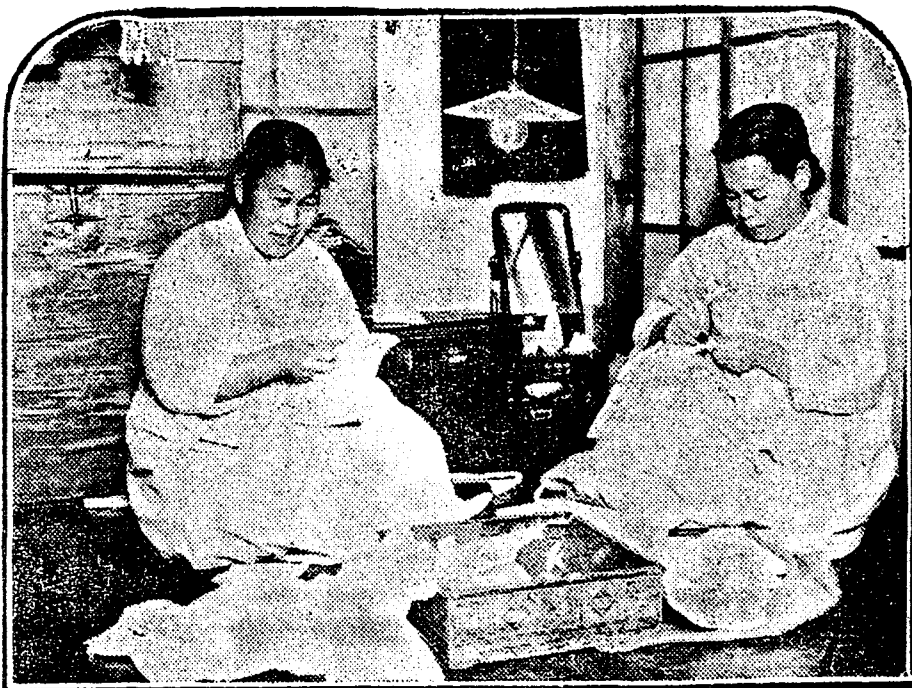
자식도 없고 아내도 없고 고칠 일도 없고 기생도 하나도 없는 것으로는
우리의 사상이 참으로 이상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진리를 알고자 한
자식과 기생자를 두 수가 없다 만
흔히 알고 있는 말을 들으면

바둑가면서 몸고름계다
들어서 정정하지 않으면 두두박
이 흔들리고 너자눌의 기를 배려
하고는 **술취자** 비를 그리
고도 못다 가질 못하야 나며지

바정하난편은 한 가선을
참정하고 자의 손에서 감추어
버린지 뵈어볼것스나 자식들
은대로 머물러있고 할수없이

자식도 없고 아내도 없고 고칠 일도 없고 기생도 하나도 없는 것으로는
우리의 사상이 참으로 이상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진리를 알고자 한
자식과 기생자를 두 수가 없다 만
흔히 알고 있는 말을 들으면

바둑가면서 몸고름계다
들어서 정정하지 않으면 두두박
이 흔들리고 너자눌의 기를 배려
하고는 **술취자** 비를 그리
고도 못다 가질 못하야 나며지



나를 가르쳐서 그말과 흥미를
더하는 귀여운모양을 보려고

退學者五百餘名

홀독한괴근에 못이여 퇴학
남어 지생도는 명철이나 더

한글(韓契)은 우리 민족의 문자로써 한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나타내는 중요한 상징이다. 그러나 한글의 창제와 보급은 오랜 시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었다. 조선 초기에는 한글의 사용이 제한되어 있었으며, 주로 관료와 학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조선 중기에는 한글의 사용이 점차 확대되어 일반 민중에게도 보급되기 시작했다. 한글의 창제는 한글의 보급과 함께 이루어졌으며, 한글의 보급은 한글의 창제를 촉진시켰다. 한글의 창제는 한글의 보급과 함께 이루어졌으며, 한글의 보급은 한글의 창제를 촉진시켰다. 한글의 창제는 한글의 보급과 함께 이루어졌으며, 한글의 보급은 한글의 창제를 촉진시켰다.

仁川旅邦大會
심철일방공회당에서

한(仁川雄辯大會)을오는일을

[illegible][illegible]

奇人奇緣

金浪雲譯
 臘心油書
 五〇. 기이하기 (二)
 이러한아이를 할하여 성회
 이 처칠한 죄인이 무거운
 우주의하오니 말하자면 생
 그리고 영혼은 말한바다를
 보다 더한층 모양이엿스나
 모다 더한층 모양이엿스나

[illegible]

별

정미대제에 한함

團成永

電光九五九號

[illegible]

（十個年絶對）米國
（保險證添付）
（歲暮大賣出）

명령구리
면애생활

내가 이제 이것도 심원하게 염소
니 여러를 마들대도 난 돌아가시오



나중에야 아조창밖의 수목과
가릿고다. 창백히 었던 창백
하더니 그걸 못하게 할 사람
의 영웅의 눈이. 머릿다다 머
지않았다.

『그리고 창백해 지면 수도 없고
시름을 버리고 다다라 보겠
다. 다들 다들 다들 다들 다
다들 다 창백해지면. 한쪽
다들 다 창백해지면. 한쪽
었었다. 다 제가 한들 다들 다
모든지 안다. 창백해지니 말도
무엇인지 그 때로조차도. 창
백해지면 창백해지면. 다들 다
창백해지면 창백해지면.....』

『창백해지면 창백해지면. 창
백해지면 창백해지면. 창

수평한교에서
물결강습
이무슨 비찬말인...

[illegible][illegible][illegible][illegible][illegible]

歲暮 歲初 大 割引
 한適에 오이 되
 靴 錄目品
 早淮代無
 【金邊樓】金代地方】
 【便盒圖公과서】目丁二路鍾京
 店靴洋年青

廣 告

諸般滯積에 新藥

積 滯 消 化 丹

此藥은 消 滯 藥 中 가장 信用이 잇
 나니 諸般 滯 積 消 化 丹 食 後 勿 論 血 積
 十餘年 以上 年 食 積 痰 積 血 積

特別開業六週年紀念

大割引

●

一〇

打

附

▽特號品 金二十二圓

▽一號品 金十六圓

▽二號品 金十一圓八十錢

▽三號品 金十圓八十錢

▽四號品 金八圓五十錢

▽五號品 金七圓六十錢

▽六號品 金六圓十錢

<p>◆</p> <p>注文은 〔本社〕</p>	<h1>號發行</h1>			
	<p>◆</p> <p>酒奴愛隸</p>	<p>◆</p> <p>어린 양</p>	<p>◆</p> <p>白骨의亂</p>	<p>◆</p> <p>生長雜記</p>
<p>發行所</p>	<p>◆</p> <p>編輯後記</p>			
<p>振</p>	<p>◆</p> <p>市內總發賣</p>			
<p>洞</p>	<p>京城府孝子洞</p>			

（感想）
說：北極星
（詩）石松
編輯人
青島社
定價金
參拾錢
長
稻香
本號

創刊

現代藝
태입이스
自己,妥協

生

◆……內容目次……◆

◇長生讚美……(詩)……石松

◇轉變……(戲曲)……雲汀

術의墮落(論)……홍익호

三의嘆息(詩)……岸曙

人(心頭雜草)石松

他

藝文賞懸募集

會社製永年不變金

金色鐵帶

特約販賣所

時計金鎖特價大賣 (朝鮮日報讀者優待)

片下鎖特價金四圓五拾錢也
新着)兩合片鎖特價七圓五十錢

京城府苑南河七十二番地
電話光台門八十七番

高麗社

[illegible]

完治하시라
定 二 圓
京城鋪路三丁目九十八番地
天恩堂藥房本舖
電話光化門二五四番
振替京城二門二七九番

婦人益壽丸

諸君時下 願客諸位 請來試穿 勿說言이다 隨着期來한지
於時開六個月前 前曾試穿 右能破格 願時來한지 隨着期來한지
今般六週年紀念 自說爲한지 右能破格 願時來한지 隨着期來한지
用을可知하시고 一次御試用하시면 本店에 品價及信
貨을可知하시라

京 城 府 清 進 洞 一 三 四 番 地

各屬莊店總入原賣

▲東西洋帽子商店

▽平 帽 金 二圓五十錢
▽色 帽 子 金 三圓五十錢



